
나눔의집 전경



차별금지법 제정촉구시위


중앙신도회장 이취임식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수식

한 자리에 모이다

5. 태고종 15년 만에 새 종정 추대

태고종 종정에 지허 스님이 추대됐다. 태고종 종정이 새로 추대된 것은 15년만이다. 더욱이 전 종정 혜초 스님이 2004년부터 15년간 3번의 임기를 만료한 2019년 4월 이후, 종정이 약 1년간 공석이었다는 점에서 지허 스님의 종정 추대는 종단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태고종이 그동안 각종 분규 등으로 그 위상이 약화된 상황에서, 종단의 정신적 스승인 종정을 새롭게 추대하면서 종단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기도 했다. 지허 스님의 종정 추대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에 봉행될 방침이다.

6. 나눔의집 사태, 일파만파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쉼터로 개원해 30년 가까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매진한 나눔의집이 운영비리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나눔의집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후원금이 할머니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와 경기도청 감사 결과 악의적인 횡령은 없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특히 내부제보를 했던 일부 직원들이 법인 · 시설과 대립각을 세워 내부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태가 점차 악화되는 등 우려를 낳기도 했다.

7. 불교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올해 차별금지법 제정활동은 사실상 불교계가 주도했다는 평가다. 21대 국회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입법 발의되면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제정촉구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됐다.

정의당표 차별금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종교'를 예외조항으로 추가한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추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13년간 6번 발의됐다가 폐기 · 철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입법화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였다.

8. 불교문화재 은닉, 설 자리 없다

지난 6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1부는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에 대해 내려진 '몰수' 명령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불교 성보 유통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는 2심의 판결이 인정됐다. 문화재 몰수 판결도 불교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로 은닉 성보 환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시 판결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불교 문화재의 유통이 비상식적인 일임이 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불법 유통이 근절될 수 있게 됐다. 도난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에는 조계종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04년 사이에 도난된 뒤 장기간 은닉돼 온 14개 사찰의 불교문화재 16건 32점을 회수하기도 했다.

9. 주요신행단체장 새얼굴로 교체

국회 정각회(회장 이원욱)가 11월 18일 오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1대 국회 정각회 개원 및 신임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1대 국회 정각회는 지난 6월 29일 창립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원법회가 지연됐고, 이날 봉행되게 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도 10월 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6 · 27대 회장 이 ·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27대 집행부 활동을 시작했다.

불교는 불교문화를 축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새해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2020년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활발발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0. 신흥사 영산회상도 환지본처

한국전쟁 직후 사라졌다가 미국의 박물관에서 발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원소장처인 신흥사로 66년만에 돌아왔다. 이번 사례는 조계종이 이를 소장했던 LA카운티박물관과 성보반환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문화교류에 대한 상호협의를 도출한 데 따른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환지본처'라는 점에서 불교계 감동이 적지 않았다.

특히 혼란했던 한국전쟁 전후시기 해외로 반출된 성보가 종단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 각계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현 소장처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선의가 더해져 환지본처에 성공한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언택트 신행문화의 새장르 열다

2020 신행포교 결산

포교사단 첫 임원 회의 후
대학생 온라인 수계법회와
유튜브 인큐베이팅 이어져
결사정신 전국적으로 전개

포교 · 신행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했다. 조계종 포교원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무각)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윤정은)는 10월 31일 '제2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열린 수계법회는 30여 대학 70여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계를 받았는데 법회에는 전계사인 공생선원장 무각 스님 외 지도법사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과 수계자 대표 3명만 참석했다. 온라인 참여자들은 화상회의로 동참했으며 연비를 대신해 연꽃모양 타투스티커를 붙였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방창덕)도 4월 14일 서울 우리함께빌딩에 위치한 포교사단 본부에서 2020년 2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다른 임원회의와 달리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포교사단은 2010년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포교사단이 구축한 화상회의 시스템은 현재 17명이 동시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포교사단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임원회의와 사무국회의, 상벌회의 등 각종 회의를 온라인 상에서 예비로 진행한 데 이어 이날 공식적으로 첫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처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자 사찰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1월 5일 조계사 백주년기념관 내 관음전에서 주지 지현 스님, 이명구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기부 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유튜브를 비롯한 언택트 포교 방법의 발달로 인한 인큐베이팅도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해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 이하 포교원)은 8월 10일 불교 크리에이터 창작지원사업을 통해 불교 크리에이터 1기 중 우수 창작자를 선정해 프로젝트 팀 'GO!사리'를 결성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매뉴얼과 찬불가 율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순례도 진행됐다. 바로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그 것이다. 자비순례는 공심(公心)이 담긴 하나의 원력(願力)이었다. 상월선원 결사는 천막결사를 거쳐 만행결사까지 장장 1년 동안 이뤄졌다. 그리고 결사마다 회향은 나눔의 행보였다. 10월 7일 대구 동화사에서 입재 후 문경새재 등을 거쳐 서울 봉은사까지의 21일간의 자비순례는 불자들에게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의 원력을 알린 자리였다. 그 회향 또한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진행했다. 병원 구급차 구입, 베트남 농촌학교 해우소 건립 등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문화유산 전승 · 활용 토대 마련

2020 학술 · 문화재 결산

연등회,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수마노탑 등 '국보' 승격 연이어
사경,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눈길
학계 포스트코로나 담론도 이어가

2020년 한해동안 문화재 분야에서는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경자년 한해의 대미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장식됐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12월 16일 온라인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에 등재 신청한 '연등회(Yeondeunghoe: Lantern Lighting Festival in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 등재를 확정할 것을 결의했다.

연등회의 인류무형유산 등재까지는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18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간 등재를 위해 연등회보존위원회, 문화재청 등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는 등재신청 양식이 변경돼 수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등재 직후 연등회보존위원장 원행 스님은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연등회에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후대에 잘 전승되도록 연등회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 성보문화재들의 국보 승격도 이어졌다. 지난 6월 25일에는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 제322호로, 지난 8월 27일에는 보물 제419-3호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 권4~5'가 국보 제306-4호로 각각 승격됐다.

또한, 지난 7월 20일에는 불교 경전을 널리 전하기 위해 이를 옮겨 적는 기술의 장인인 '사경장(寫經)'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첫 보유자로 김경호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이 인정됐다.

이와 함께 은닉 · 성보 성보문화재 몰수와 환수가 이뤄진 것도 의미가 크다. 대법원 1부는 6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또한 은닉 불교문화재 39점에 대해 내려진 '몰수' 명령도 확정됐다. 지난 10월 29일에는 조계종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협력해 2004년 사이에 도난된 뒤 장기간 은닉돼 온 14개 사찰의 불교문화재 16건 32점을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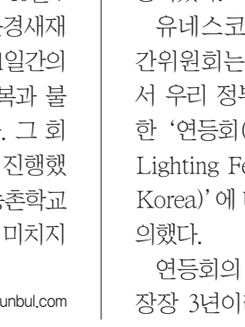
학술분야에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불교학자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한국불교학회가 12월 23일 동계워크숍에서 포스트코로나를 주제로 학술담론을 열었고, 불교평론의 포스트코로나 특집, 명상심리상담학회의 코로나 블루 치유법 모색 학술대회도 눈길을 끌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당신 삶으로 증명하세요.
자신의 삶보다 위대한 증명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 떠난 2년간의 세계 만행. 선방 수좌 원제의 조금 특별한 수행기!

제방 선원에서 20여 안거를 지낸 원제 스님. 단순, 소박,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는 그가 산문 밖을 나서 2년여 시간 동안 5대륙 45개국 세계 일주를 완수했다. 그동안 해온 수행을 세계 도처에서 점검하겠다는 결의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한국 불교와 선 수행을 알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고집스레 두루마기 승복을 입고, 낡은 삿갓을 쓰고, 손에는 염주를 쥔 채 세계를 누빈 원제 스님의 여행의 순간, 깨달음의 기록!



원제 스님

2006년 해인사로 출가, 도림법전 스님의 제자로 스님이 되었다. 삶의 경험들이 수천수만이어도 자기만의 안목으로 통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멋진 삶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김천 수도암에서 정진 중이다.



다만 나로 살 뿐 1, 2
원제 스님의 정면승부 세계 일주

원제 지음 | 각권 15,000원

문의 031.955.9790 수오서재